

2026 대중음악 음반 제작지원 서면평가 종합심사평

2026 대중음악 음반 제작지원 사업에 대한 1차 서면평가를 2026년 4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뮤지션 부문에 대한 평가는 신청하는 뮤지션이 소속사가 없거나 뮤지션이 소속사 대표이자 본인만을 매니지먼트하는 경우 평가대상이 되고, 클래식, 오페라, 국악 장르를 제외한 대중음악 전 장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획사 부문에 대한 평가는 신청하는 뮤지션이 소속사가 있는 경우 또는 음반제작사가 전속 관계에 없는 뮤지션의 음반제작을 신청하는 경우 평가대상이 되고, 제출서류에 있어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이 추가되어 심사기준이 엄격히 적용되었습니다.

뮤지션 부문의 종합적인 심사 견해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가들이 참여하여 심사에 있어서 공정성을 지키려 노력하였고, 독창성과 신선함이 뛰어난 뮤지션이 많다는 것에 다시 한 번 놀라웠습니다.

기획사 부문에 참여한 대부분의 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등 법적 요건을 충실히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제작 공정 전반에 걸친 전문성과 사업 추진 의지가 돋보였습니다. 다만, 일부 과제에서 발견된 '실행 계획의 구체성 부족(예산 산출 근거 등)은 협약 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향후 대중음악 생태계의 건강한 균형 발전을 위해 장르 다양성을 확보하고 신규 우수 기획사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 기획의 형평성을 재고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동반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 대중음악의 발전을 기대합니다.